



(사)한국포장협회

제32차 정기총회 개최

제25회 한용교포장인상 시상식도 열려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는 2월 18일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한 협회 사무국 내 화상회의실에서 ‘포장인의 날’을 기념해 제32차 정기총회와 제25회 한용교포장인상 시상식을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했다.

협회는 총회에서 2021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와 함께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해 협회는 ▲포장 원·부자재 표준원가 조사, 해외 포장제품 사용업체 조사, FITI시험연구원 및 KOTITI 시험연구원의 MOU 체결 등의 조사사업, ▲K-PRINT 2021, KOPLAS 2021, 한국포장전 2021, 터키 유라시아팩 2021 홍보부스 운영 등의 전시사업, ▲제35기·제36기 포장기술관리사 교육, 유관단체의 포장 관련 교육과 연계한 교육 개발 등의 교육사업, ▲장안대학교와 산학협력 협약, 일본 (주)가공기술연구회와 한국 에이전트 협약, 터키 및 러시아 바이어와의 화상 상담회 진행 등의 국내외 포장 관련 기업 및 단체와의 교류사업, ▲포장재 B2B사이트 ‘PACKKO’, E-catalog 등 회원사 홍보물 제작 및 유포 등 회원사들의 경영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포장 원·부자재 표준원가 조사 및 홍보, 회원사 통계 및 실태조사 등의 조사사업, ▲2022 러시아 모스크바 포장인쇄전(6월) 및 2022 터키 유라시아팩(10월)의 한국관 구성 및 참관단 파견, 국내 포장 관련



▲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는 2월 18일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한 협회 화상회의실에서 ‘포장인의 날’을 기념해 제32차 정기총회와 제25회 한용교포장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정기총회 모습.

전시 참가 등의 전시사업, ▲포장기술관리사 교육 강화를 위한 교재 보완, 포장 세미나 공동주최 등의 교육사업, ▲ 각종 분과위원회, 지역모임 등의 개최, 화상 상담회 진행 등의 회원사 지원사업 등을 통해 국내 포장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서 임경호 (사)한국포장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코로나19와 고군분투하고 있다. 고생하고 계시는 회원사 및 포장인 여러분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올해에도 원부자재 가격 상승, 강화된 규제 등으로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아 보이지만 함께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충분히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회원사 모두 발전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회 이후에는 제3회 (사)한국포장협회 회장상과 공로패에 대한 수여식이 있었다.

먼저 공로패는 신동윤 율촌화학(주) 회장이 수여받았다. 신 회장은 협회 창립부터 지금까지 30년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은 물론 포장기술관리사교육사업, 국제 전시사업 등 협회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회원사 확대, 월간 포장계 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협회 발전과 위상을 제고시키는 것에 이바지했다. 특히 협회의 숙원사업이었던 포장회관 마련에 앞장서 한국포장협회가 포장관련 국내 최고 민간단체로 성장하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어서 제3회 (사)한국포장협회 회장상은 투명배리어필름, AL증착필름 등 고기능성 필름을 생산하고 있는 (주)서일의 이현철 연구소장이 수상했다. 이 소장이 이끌고 있는 서일의 기술연구소는 최근 국내 최초로 레토르트용 투명배리어필름을 개발, 그동안 일본에서 독점 생산하던 투명배리어필름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날 제25회 한용교포장인상 시상식에서는 연구개발 부문에 박세철 (주)아이피씨 기술연구소 소장이, 수출진흥 부문에 최봉규 (주)천일 대표이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고, 장학생 부문에서는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



▲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는 2월 18일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한 협회 화상회의실에서 '포장인의 날'을 기념해 제32차 정기총회와 제25회 한용교포장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협회 관계자들과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 신동훈 학생과 대구대학교 식품공학과 박정우 학생이 장학금을 수여받았다.

한국포장협회 한용교 명예회장이 회사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한용교포장인상은 포장인들에게 연구의욕을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포장산업을 발전시키고자 지난 1996년 제정됐다.

(사)한국포장협회

제37기 포장기술관리사 교육생 모집

3월 18일 접수마감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는 제37기 포장기술관리사(Packaging Professional) 통신교육생을 모집한다.

▲ 제37기 포장기술관리사 교육내용 및 일정

주 별	연/월/일	과 목	교재발송	시험답안접수
제 1 주	22. 3. 21~25	• 포장개요 • 지류포장	22. 3. 21	22. 4. 2
제 2 주	22. 3. 28 ~4. 1	• 플라스틱 포장재	22. 3. 28	22. 4. 9
제 3 주	22. 4. 4~8	• 금속포장(제관) 및 유리병	22. 4. 4	22. 4. 16
제 4 주	22. 4. 11~15	• 목재포장재 및 포장부자재	22. 4. 11	22. 4. 23
제 5 주	22. 4. 18~22	• 방수 · 방습 · 방청 · 완충 · 중량물 포장기법	22. 4. 18	22. 4. 30
제 6 주	22. 4. 25~29	• 포장인쇄기법 및 기타 포장기법	22. 4. 25	22. 5. 7
제 7 주	22. 5. 2~6	• 식품 · 의약품 포장기법	22. 5. 2	22. 5. 14
제 8 주	22. 5. 9~13	• 포장기계	22. 5. 9	22. 5. 21
제 9 주	22. 5. 16~20	• 포장과 환경	22. 5. 16	22. 5. 28
제10주	22. 5. 23~27	• 물적유통 및 포장디자인 · 마케팅	22. 5. 23	22. 6. 4
제11주	22. 5. 30~6. 3	• 포장시험 및 포장관련법규	22. 5. 30	22. 6. 11
종합시험		• 종합시험문제 발송	22. 6. 6	22. 6. 18
최종심의 완료			22. 7. 4	
수강자 통보(심의통과)		• 관리사증 발송	22. 7. 11	

이번 교육은 3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11주간 진행되며, 접수마감은 3월 18일(금)까지이다. 수강료는 일반 포장관련 기업, 연구소 및 단체는 40만 원, 포장협회 회원사는 32만 원, 포장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4년제 또는 2년제)은 20만 원이다. 교육관련 문의 및 신청은 (사)한국포장협회(TEL 02-2026-8655)로 하면 된다.

(사)한국포장협회

장안대학교와 산학협력 협약 맺어

인재 양성 및 정보 교환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가 2월 4일 협회 사무국에서 장안대학교(총장 김태일)와 산학협력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국가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고도 산업사회에 따른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고 산학협력을 위한 제반업무의 유기적 관계를 통한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협약식에는 김서현 장안대학교 융복합패키징과 교수가 참여했다.

앞으로 협회와 장안대학교는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전문 인력 양성과 전인 교육을 위해 노력하며 전문 인력 공급에 협조하고, ▲상호 협력 하에 연구 활동과 지식 정보의 교환 및 위탁 교육을 통해 상호 발전



▲ (사)한국포장협회(회장 임경호)가 2월 4일 협회 사무국에서 장안대학교(총장 김태일)와 산학협력협약을 맺었다. 오선진 (사)한국포장협회 전무이사(좌)와 김서현 장안대학교 융복합패키징과 교수(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적 산학협력을 진흥시키고, ▲시설기가재 및 실험·실습기자재를 공동 활용하고 현장연수와 현장실습에 협조하며 취업 연계를 도모해나갈 예정이다.

한국포장협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학이 함께 포장업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디엘에프엔씨(주)

포장협회 신입회원 가입

BOPP필름, EVA 코팅필름 등 생산

디엘에프엔씨(주)(대표이사 이재태)가 (사)한국포장협회의 신입회원사로 가입했다.

디엘에프엔씨는 디엘그룹의 플라스틱가공 전문기업으로, BOPP필름, EVA 코팅필름, 특수코팅필름 등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국내 유일의 5레이어 설비를 통해 안정적인 연포장, 합지 제품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끊임 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산업용 소재, 가구 소재, 고부가 표면코팅 제품을 생산하며 국내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디엘에프엔씨 관계자는 “기초 BOPP부터 고부가가치 EVA제품까지 폭넓은 상품 생산과 전략적 제휴,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성장과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엘에프엔씨(주)

주소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802

주요생산품목 : BOPP필름, EVA 코팅필름

TEL : 063-260-1163 FAX : 063-261-0149

홈페이지 : <http://www.dlfnco.kr>

최봉규 (주)천일 대표이사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정기총회 및 취임식 개최

최봉규 (주)천일 대표이사가 지난 2월 24일 대전 ICC호텔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제



회원사의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리며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사)한국포장협회 회원사 임직원 일동

대양인쇄기계(주)
1991년 3월 5일 창립 31주년

[주]대원포장산업
2014년 3월 11일 창립 8주년

[주]덕원
2004년 3월 18일 창립 18주년

[주]동양잉크
1948년 3월 1일 창립 74주년

삼영잉크페인트제조(주)
1971년 3월 15일 창립 51주년

[주]에스피씨팩
1971년 3월 1일 창립 51주년

에이치에스엠(주)
2010년 3월 1일 창립 12주년

제이에셀(주)
2016년 3월 1일 창립 6주년

[주]코리아임팩트
1995년 3월 16일 창립 27주년

**창립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최봉규 (주)천일 대표이사가 제13대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1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행사는 신임 회장 선출, 중앙회 사업 및 예산안을 의결하는 정기총회와 강승구 전임회장과 신임회장 간 이·취임식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취임식에는 김성섭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조동욱 한국산학연합회 회장 등 내외 귀빈과 회원사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최봉규 대표이사는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을 졸업하고 1991년에 천일산업과 2010년 천일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최봉규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연합회와 상생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중앙회와 14개 국내외 연합회가 서로 함께 발전할 수 하도록 하겠



다”며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대, 원자재 원가 상승 등 경제적 어려움이 나날이 가중돼 가고 있어 회원사 간 정보 교류를 촉진시키고 체계적인 협업 활동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주)태영캠

경기도 화성시로 이전

고품질 제품의 안정적 공급 기대



▲ (주)태영캠(대표이사 김금옥)이 경기도 화성시로 본사를 확장, 이전했다.

(주)태영캠(대표이사 김금옥)이 경기도 화성시로 본사를 확장, 이전했다고 밝혔다. 태영캠은 인쇄용 그래픽어잉크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이번에 본사를 경기도 화성시로 확장 이전하면서 보다 고품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태영캠 관계자는 “경기도 화성에 새롭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번 확장 이전을 통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주)태영캠 이전 안내

새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단7길 43

TEL : 031-458-5111

FAX : 031-452-6808



화승케미칼

OPP업계 최초 'ISCC 플러스' 친환경 국제인증 획득

유럽시장 경쟁력 강화



▲ 화승그룹의 정밀화학분야 대표기업인 화승케미칼(대표 우석훈)이 자사 OPP필름에 대해 국내 업계 최초로 친환경 소재 국제인증인 'ISCC 플러스(International Sustainability and Carbon Certification)'를 획득했다.

화승그룹의 정밀화학분야 대표기업인 화승케미칼(대표 우석훈)이 자사 OPP필름에 대해 국내 업계 최초로 친환경 소재 국제인증인 'ISCC 플러스(International Sustainability and Carbon Certification)'를 획득했다고 2월 10일 밝혔다.

ISCC플러스 인증은 유럽연합(EU)의 '재생에너지지침'에 부합하는 국제인증제도로, 제품의 소재 및 생산과정 등에 대한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수단이다. 전 세계 130여개의 친환경 소재 제조업체와 NGO, 연구기관 등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친환경 인증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신뢰도가 가장 높은 인증제도다.

화승케미칼은 이번에 ISCC로부터 OPP필름 생산 시 엄격한 생산·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만든 재생 수지(recycling resin)를 사용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증 받았으며, 이는 국내 필름 업계로는 최초의 사례이다.

OPP필름은 폴리프로필렌(Poly propylene)을 주원료로 해 특수가공 처리한 필름으로, 일반 PP필름에 비해 기계적 강도와 내열성, 투명성 등이 뛰어나 식품포장과 산업

용 등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ISCC 플러스 인증 획득에 따라 화승케미칼은 올해 4월부터 발효되는 영국의 플라스틱세(Plastic tax) 등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는 유럽시장에서 더욱 탄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화승케미칼 관계자는 “지속발전 가능한 기업을 목표로 전사 차원에서 ESG경영을 구체화시켜가고 있으며, 이번 ISCC 플러스 인증도 그에 따른 성과”라며 “전 세계적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유럽시장뿐만 아니라 여타 시장에서도 친환경 드라이브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번 인증으로 화승케미칼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

중기부와 '자상한 기업' 협약

세미산업 등 중소기업 150개사 ESG 평가 상담

대상(대표 임정배)이 2월 16일 경기도 화성 소재 세미산업(대표이 임경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와 'K-푸드를 이끌어 나갈 식품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기부가 ESG·한국판 뉴딜·탄소중립 등 시의성 있는 중점 분야와 관련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는 '자상한 기업 2.0'의 10번째 협약으로, 자상한 기업 최초로 식품 분야 중소기업의 환경경영과 ESG 경영을 지원한다.

1956년 설립돼 국산 발효 조미료 1호인 미원을 시작으로 청정원, 중가집 등 브랜드를 보유한 대상은 식품업계 최초로 동반성장위원회와 임금격차 해소운동 협약을 맺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상생협력에 앞장서고 있다.

대상은 이번 협약에 따라 협력 중소기업의 품질·환경, ESG 경영을 활성화한다. 대상은 중소기업의 소비자 중심경영(CCM) 인증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컨설팅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협력 중소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평가, 현황 진단, 컨설팅 등을 통해 ESG 경영 도입을



▲ 대상(대표 임정배)이 2월 16일 경기도 화성 소재 세미산업(대표이 임경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와 'K-푸드를 이끌어 나갈 식품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원한다.

협력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 지원에도 나선다. 대상은 구매상담회 개최, 해외 인증 획득 등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자체 상생협력 상표인 ‘음식(푸드)마크’를 통해 공동 기술 개발, 마케팅 노하우 전수 등을 확대해나간다.

청년과 함께 대학가 식당 활성화를 위한 활동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대학가 골목식당 활성화를 위해 대학 청년 동아리와 함께 식당 환경 개선과 홍보 등을 지원하는 ‘청춘의 밥’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한다.

임정배 대상 대표는 ”이번 자상한 기업 협약을 계기로 협력사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새로운 성장 플랫폼을 조성하도록 할 것“이라며 ”ESG 시대가 요구하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이러한 노력이 자발적 상생협력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식품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자상한 기업으로 나서준 대상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중기부도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K-푸드가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상

식품업계 최초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2종 획득

ISO 27001 및 ISO 27701 인증 동시 획득

대상(주)이 지난 2월 14일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국제표준 정보보호경영

시스템 ‘ISO 27001’ 인증과 개인정보보호 경영 시스템 ‘ISO 27701’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2월 15일 밝혔다.

ISO 27001 인증과 ISO 27701 인증은 정보보호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표준으로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해



▲ 2월 14일 서울 종로구 대상(주) 본사 사옥에서 진행된 인증서 수여식에서 최창빈 대상(주) 지원본부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윤한권 상무(오른쪽에서 세 번째), 임성환 국제표준 인증기관인 영국왕립표준협회 한국지사(BSI KOREA) 대표이사(오른쪽에서 첫 번째)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야 하며 조직의 정보 자산과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해야 한다.

그동안 대상(주)은 개인정보보호 법률이 강화되고 ESG경영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정보보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번 인증 획득을 바탕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엄격히 관리해 보호하는 한편 기업의 정보자산을 쉽게 보호하고 활용하는 보안 문화를 정착해나갈 방침이다.

오리온

‘2022 제과업계 글로벌 Top 100’ 12위 등극

아시아 제과기업 중 가장 높은 순위

오리온이 글로벌 제과산업 전문지인 캔디인더스트리(Candy Industry)가 발표하는 ‘2022 제과업계 글로벌 Top 100’에서 12위에 올랐다고 2월 22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두 계단 더 상승하며 아시아 제과기업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제과업계 글로벌 Top 100’은 매년 전 세계 제과기업의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선정·발표하는 자료다.

오리온은 지난해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전 법인에서 경쟁력 높은 신제품 출시 및 시장 확대에 성장세를 이어가며 매출액 2조 3,594억 원, 영업이익 3,729억 원을 기록했다. 국내 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10년 연속 15위권에 진입하는 금자탑도 세웠다.

오리온 한국 법인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한 ‘꼬북칩’ 열풍이 지난해에도 지속된 가운데 44종의 신제품을 공격적으로 출시했다. 이와 함께 건강 트렌드에 힘입어 ‘마켓오 네이처’와 ‘닥터유’ 브랜드의 매출이 각각 전년 대비 40% 이상 오르며 매출과 이익의 지속 성장을 이어갔다.

중국 법인은 ‘초코파이’, ‘오!감자’ 등 기존 더블 메가브랜드(연매출 2,000억 원 이상 브랜드)의 자매품이 인기를 끌고 신규 카테고리도 확대하며 성장세를 유지했다. 베트남 법인은 감자스낵과 쌀스낵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젤리, 견과류 등 신규 카테고리를 지속 확대해 연매출 3,000억 원을 돌파하며 명실상부한 베트남 대표 식품 기업으로 자리매김 했다.

러시아 법인은 현지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체리, 라즈베리 등 잼을 활용한 초코파이의 인기와 다제품 강화 체제에 힘입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매출 1,000억 원을 넘어섰다.

오리온 관계자는 “차별화된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현지화 전략을 펼치며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제과기업으로 인정받았다”며 “60여년간 축적해온 제품 노하우와 해외사업 역량으로 제과를 넘어 종합식품기업으로 제2의 글로벌 도약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효성화학(주) 등 효성 주요 계열사

대한적십자사 아너스기업 가입

사회공헌활동 공로 인정받아 선정

효성화학(주)을 비롯한 효성티앤씨(주), 효성첨단소재(주), 효성중공업(주) 등 효성그룹의 주요 계열사가 적십자사 고액 기부 클럽인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회원으로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효성그룹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대한적십자사 법인단체 고액 기부 클럽인 아너스기업에 가입했다고 2월 14일 밝혔다.

앞서 지주회사 (주)효성은 지난 2020년 2월 아너스기업 10억 원 클럽에 가입했다. 이어 주요 계열사 4곳이 함께 아너스기업에 가입한 셈이다.

효성은 2005년부터 대한적십자사의 '사랑의 밑반찬 나눔'을 후원하고, 임직원 사랑의 헌혈 나눔, 대한적십자사 바자회 지원 등을 지속해서 후원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극복 성금, 2020년 수해 피해 복구 성금, 사랑의 헌혈버스 기부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편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부인인 송광자 여사는 2016년 고액 개인 기부자 클럽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에 가입했다. 이후 그의 언니인 송길자 여사가 가입하면서 최초의 아너스클럽 자매 회원이 되기도 했다.



▲ 효성 커뮤니케이션실 이정원 전무(오른쪽)가 2월 14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대한적십자사 신회영 회장과 함께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가입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알미늄

미추홀소방서와 주택용 소방시설 기증식 가져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 롯데알미늄(주)(대표이사 조현철)이 지난 2월 14일 미추홀소방서(서장 박성석)와 주택용 소방시설 비대면 기증식을 가졌다.

롯데알미늄(주)(대표이사 조현철)이 지난 2월 14일 미추홀소방서(서장 박성석)와 주택용 소방시설 비대면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각 기관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증식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 설명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계획 ▲기념 촬영 등이 있었다.

이번에 기증한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취약계층에 보급될 계획이다.

롯데알미늄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기증을 통해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 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SKC

2021년 사상 최대 연간 매출 · 영업이익 달성

2021년 매출 3조 3,961억, 영업이익 4,645억 원

SKC가 2021년 매출 3조 3,961억 원, 영업이익 4,645억 원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38%, 영업이익은 130% 늘어났다. 2022년에도 실적 상승세를 이어나가 매출 3조 8,000억~4조 원, 영업이익 4,500억~5,00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SKC는 2월 8일 서울 종로구 SKC 본사에서 주요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이날 실적발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다.

SKC는 지난해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꾸준히 이어나가며 모든 사업부문에서 성장을 이뤄냈다. 또 세계 1위인

2차전지용 동박사업의 국내외 증설을 빠르게 추진했으며 고성능 컴퓨팅용 반도체 글라스 기관, 2차전지용 실리콘 음극재,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 등 고부가, 친환경 분야 신소재 사업도 시작했다. 산업은행과 1조 5,000억 원 규모의 금융협약을 체결하는 등 투자재원도 확보했다.

동박사업 투자사 SK넥실리스는 지난해 매출 6,632억 원, 영업이익 795억 원을 기록했다. SKC 편입 첫 해인 2020년보다 매출은 79%, 영업이익은 50% 증가했다. 2차전지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정읍 5공장 상업화로 생산량이 증가한 것이 주효했다. 올해 6공장 상업가동을 개시하면 실적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2023년에는 말레이시아 공장을, 2024년에는 폴란드 공장을 상업화할 예정이다.

화학사업 글로벌 합작사 SK피아이씨글로벌은 매출 1조 1,021억 원, 영업이익 3,322억 원을 달성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57%, 영업이익은 277% 성장했다. 우호적인 업무에 더해 고부가 PG(프로펠렌글리콜) 중심의 포트폴리오 강화 전략으로 수익성을 대폭 강화했다. SK피아이씨글로벌은 올해에도 고부가 PG 중심의 대형 고객사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인더스트리소재사업부문은 2021년 매출 1조 1,319억 원, 영업이익 690억 원을 기록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 일회성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보다 늘었다. 올해는 디스플레이 대형화 추세 등 견조한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소재 생분해 라이믹스 사업을 본격화하고, 생분해 PLA 포장재 용도를 확대하는 등 친환경 소재 분야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SKC솔믹스 중심의 반도체소재사업은 매출 4,846억 원, 영업이익 221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도 흑자전환에 이은 추가성장을 이뤄냈다.

특히 지난해 2분기부터는 분기마다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했다. CMP패드 천안공장이 상업 가동을 시작하며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세라믹 부품 수요도 견조하게 이어진 덕분이다. 올해는 CMP패드 고객사를 늘리고, 블랭크마스크 상업화로 성장세를 이어간다.

SKC는 지난해 재무성과 뿐만 아니라 ESG 경영에서도 좋은 성과를 냈다. MSCI ESG 등급은 전년도 'B'에서 지난해 'BB'로, KCGS 종합등급은 같은 기간 'B+'에서 'A'로 상향되는 등 주요 ESG 평가등급이 개선됐다.

또 SK넥실리스는 UL의 '폐기물 매립 제로(ZWTL)' 골드 등급, SK피아이씨글로벌은 에코바디스의 'ESG 경영평가' 골드 등급을 각각 획득하는 등 공신력 있는 글로벌 기관의 인증을 받았다.

올해 SKC는 '글로벌 ESG소재 솔루션 기업'으로 기업 정체성을 새롭게 혁신한다. 또 2차전지 및 반도체, 친환경 소재 등 ESG 비즈니스 모델의 주력 사업화를 완성해 나간다. 이를 위해 대규모 투자와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ESG 기업에 걸맞은 역량과 조직,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SKC 관계자는 "5년에 걸친 '딥 체인지'의 결과로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며 "올해에는 글로벌 ESG 소재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해서 성과를 거둔다는 뜻의 '리프 앤드 리프(Leap & Reap)'를 실행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도 배당금은 전년보다 10% 늘어난 1주당 1,100원이다. SKC 관계자는 "어려운 대외환경에도 적극적 주주 환원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배당금을 전년 대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투명페트병, 식품용기로 고품질 재활용 본격 시행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 확정 · 고시

별도로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을 세척, 분쇄, 용융하는 물리적인 가공 과정을 거쳐 식품용기로 재활용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식음료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용기로 만드는 과정에서 선별사업자와 재활용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 품질기준 등을 담은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을 확정하여 2월 24일 고시하고 이날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기준에 따르면, 식품용기에 사용되는 재생원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재활용사업자는 파쇄·분쇄 및 광학선별 시설 등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재생원료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료는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되지 않도록 수거·운반한 후,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선별업체가 별도로 보관, 압축, 선별한 투명페트병만을 사용해야 한다. 재활용 공정을 거쳐 생산된 재생원료는 ▲라벨 등 이물질, ▲폴리올레핀(PO) 및 접착제 함량, ▲폴리염화바이닐(PVC) 함량 등 품질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생산을 희망하는 재활용업체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92)에 적합성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해당업체의 시설 및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한다.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재활용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특히 식품용기에 사용되는 투명페트병 재생원료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인 점을 고려하여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2중 검증체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로 수거·선별된 투명페트병을 중간원료(플레이크)로 만드는 단계까지 1차 검증을 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후 단계부터 2차 검증을 담당하며, 지난해 9월 7일 개정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용기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최종원료를 심사·인정한다.

한편 식품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은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확산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코카콜라, 펩시, 네슬레 등 세계적인 식품 음료 기업에서도 자사 제품 용기에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자발적 목표를 수립하고,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그간 국내에서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경우,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정제해서 중합한 것이거나 신규 원재료로부터 발생한 자투리 등 공정 부산물로

그 범위가 제한되었으나 이번 제도 개편 시행으로 해외처럼 물리적인 재활용도 가능해졌다.

홍동근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에 개편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고품질 재생원료의 안정적 수요처가 확보되어 투명페트병의 재활용이 활성화되고, 재생원료의 품질 향상을 통해 우리나라 재활용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제3회 정기총회’ 개최

플라스틱 ‘KOLAS 공인시험원’ 설립 추진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이사장 정철수)은 2월 22일 서울가든호텔 2층 아이리스홀에서 플라스틱제품 제조 등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조합원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합 정기총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 등의 권고로 서명이사 등 필요한 최소한의 조합원만 참석하고 대부분의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에 참여해 왔으나 이번 정기총회는 조합원들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직접 회의장에 참석하는 대면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조합 정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지난해 플라스틱산업조합이 수행한 사업보고·결산에 대한 안건과 올해 2022년 사업계획·예산에 대한 안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정철수 이사장(일신화학공업(주) 대표이사)은 인사말을 통해 “2019년 말 조합 설립인가 이후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조합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전한다”며 “올해는 폐기물부담금 부과·플라스틱 사용규제 및 재활용 확대 등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정부의 환경규제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정부의 R&D 위탁사업을 확대 수행하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도 다수 중소기업의 공동애로를 해소하고 조합의 공동사업 확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 중 완료를 목표로 플라스틱 ‘KOLAS 공인시험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

‘Cold Chain Show 2022’ 전시 참가업체 모집

3월 31일까지 콜드체인 분야 전시 참가업체 모집

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회장 서병륜)는 국제물류산업대전에 ‘Cold Chain Show 2022(콜드체인 특별관)’을 개설하고 3월 31일까지 전시회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2월 8일 밝혔다.

최근 식품 안전에 대한 욕구 증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콜드체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선



▲ 한국식품콜드체인협회(회장 서병문)는 국제물류산업대전에 'Cold Chain Show 2022(콜드체인 특별관)'을 개설하고 3월 31일까지 전시회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한다.

식품 및 의약품 콜드체인 기업들의 서비스 및 솔루션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콜드체인 특별관을 조성해 운영해왔다.

2020년에 시작해 올해 3회째 맞는 'Cold Chain Show(콜드체인 특별관)'는 6월 14일에서 17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내 국제물류산업대전에서 열린다.

이번 'Cold Chain Show(콜드체인 특별관)'는 콜드체인 관련 기업이 자사 서비스와 제품 등을 홍보 및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동시 개최하는 '식품 콜드체인 고도화를 위한 신기술 세미나'를 통해 콜드체인의 트렌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올해 8회째를 맞는 신기술 세미나는 식품·의약품 콜드체인 업계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 콜드체인의 최근 동향과 분야별 신기술 소개를 주제로 개최된다.

콜드체인 전시 모집분야는 총 6개 분야로 ▲운송(냉동·냉장물류업체, 냉동·냉장 탑차, PCM 차량, 이동식 쿨컨테이너) ▲보관(냉동·냉

장물류센터 개발·건축·시공 및 운영, 창고 3PL 및 임대) ▲식품 제조·유통(식품 및 식자재 제조·유통업체, 신선식품 배송업체) ▲포장 용기(콜드체인 포장재, 용기, 냉매) ▲냉동·냉장 설비(공조 설비, 축냉설비, 방열도어, 도크셸터, 열교환기, 온·습도 조절기) ▲SCM 솔루션(콜드체인 모니터링 시스템, 온도 센서, 신선식품 이커머스, 콜드체인 모바일 플랫폼, 컨설팅 등) 등이다.

콜드체인특별관 참가 신청은 3월 31일까지이고, 신청 우선 순으로 배정되며 부스 소진 시 마감된다.

메인비즈니스협회

석용찬 현 협회장 연임

제13차 정기총회 개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이하 메인비즈니스협회, 회장 석용찬)는 지난 2월 23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제1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석용찬 현 협회장의 연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메인비즈니스협회를 이끌어온 석용찬 현 협회장(화남인더스트리·은성정밀인쇄 회장)의 연임이 최종 의결되면서 2024년까지 임기를 이어가게 되었다.

석용찬 회장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경제시대에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핵심과제는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이라며 "협회는 메인비즈니스기업, 혁신형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스케일업을 위해 ESG경영, 탄소중립, 디지털전환을 선도하는 경영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라고 연임 소감을 밝혔다.



▲ 석용찬 메인비즈협회 회장(화남인더스트리·은성정밀인쇄 회장)이 연임, 2024년까지 임기를 이어가게 되었다.

앞으로 석용찬 회장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중소기업 스케일업 지원 ▲디지털전환 대응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신설 ▲중소기업 ESG, 탄소중립 역량강화를 위한 세계·금융·컨설팅 지원 ▲중소기업 간 협업 및 수평적 기업결합을 통한 스케일업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2020년부터 2년 동안 석용찬 회장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개정안 공포·시행 ▲‘2021중소기업경영혁신대회’ 정부포상 시상규모 확대 등 성과를 거두었으며, ▲중소기업 스케일업 지원 건의 ▲초과유보소득세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등 대정부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한편, 메인비즈협회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현재 약 2만 여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확인하고, 약 4,700개의 정회원사와 전국 96개 지회(7개 연합회)를 갖춘 중소기업 경제단체이다.

이날 정기총회는 코로나19 확산을 염려하여 최소한의 현장 참석인원으로 진행되었다.

롯데케미칼

해양 생분해 플라스틱 PHA 대량생산기술 확보

세계 최초 석유화학 기반 PHA 상업화 목표

롯데케미칼(대표이사 부회장 김교현)이 중앙대 윤성호 교수와 공동으로 석유화학 기반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인 PHA 생산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2월 14일 밝혔다.

PHA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 중 하나로 포장재, 의료용 제품, 화장품 용기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일반 플라스틱 소재보다 생산과정에서 탄소저감 효과가 우수하고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친환경 고부가 소재다.

특히 인체에 무해할 뿐만 아니라 타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와 비교 시 일반 자연 및 해양 조건에서도 우수한 생분해성을 보유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플라스틱 폐기물 및 해양 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이 주목받음에 따라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는 제품이다.

롯데케미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서강대학교 C1 가스 리파이너리 사업단의 지원으로 수행되어진 중앙대 윤성호 교수의 자체 개발 촉매 기술을 활용, 공동연구를 통해 2023년까지 석유화학 기반의 PHA 생산기술 확보 및 제품용도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상업화되면 석유화학 원료 기반으로는

세계 최초의 생산 사례가 된다.

현재 PHA는 미생물 원료를 활용하여 생산된다. 미생물을 배양 후 발효 등의 과정을 거쳐 제조되므로 원료 수급이 어렵고 생산규모가 작다. 이로 인해 제품가가 비싸고 가격경쟁력이 낮다.

석유화학 기반의 제조공정이 상업화되면 상대적으로 수급이 용이한 화학·바이오매스 원료를 사용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제품 양산이 가능해진다.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황진구 대표는 “롯데케미칼의 공정 개발 역량과 윤성호 교수의 기술 노하우를 접목하여 PHA 상업 생산을 실현해 내겠다”며 “적극적인 연구 투자를 통해 고객 수요에 맞춘 친환경 소재 확대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에 힘쓸 것”고 밝혔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는 매년 세계적으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생분해성 플라스틱 수요량은 2020년 약 97만 톤에서 2026년에는 약 200만 톤에 달하며, 연평균 14%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SK케미칼

국내 최초 ‘화학적 재활용 PET’ 상용화

‘스카이펫(SKYPET) CR’ 양산체계 구축

SK케미칼이 식품용기시장에 ‘화학적 재활용 페트 (Chemical Recycle, CR-PET)’를 본격적으로 공급한다.

SK케미칼(대표이사 전광현 사장)은 국내 최초로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페트(PET)인 ‘스카

이펫(SKYPET) CR’의 양산 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공급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로써 SK케미칼은 화학적 재활용 ▲코폴리에스터 ▲페트 라인업 구축을 완료했다.

SK케미칼은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로 ‘화학적 재활용 코폴리에스터’를 상업생산했다. ‘화학적 재활용 페트(CR-PET)’란 수거된 페트병을 화학적 반응을 통해 깨끗한 PET를 만들 수 있는 원료물질을 회수하는 ‘해중합(Depolymerization)’ 기술을 이용해 다시 만들어진 페트를 말한다. 이를 통해 페트병을 계속 반복해서 페트병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플라스틱 자원순환 체계의 핵심이다. SK케미칼은 ‘스카이펫 CR’ 제품을 생산·공급할 예정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생산량을 더욱 늘려 나간다는 복안이다. 특히 국내·외에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는 추세여서 재활용 페트시장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페트의 경우 2030년까지 원료의 30% 이상을 재생원료로 사



▲ SK케미칼이 식품용기시장에 ‘화학적 재활용 페트(Chemical Recycle, CR-PET)’를 본격적으로 공급한다.

용하도록 하는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2030년 재생원료 30% 의무사용 시 연간 15만 톤의 재생 페트가 필요하다. 이 같은 시장환경 변화에 힘입어 SK케미칼은 ‘스카이펫 CR’의 투명성과 외관, 안전성 등의 뛰어난 물성과 친환경성을 앞세워 국내외 식음료병과 식품포장 필름의 원료 공급에 집중하고 이밖에 섬유용도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21년 우드매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페트 시장 규모는 연간 9,000만 톤 정도이고 재활용 페트는 약 11%인 970만 톤 규모로 대부분 ‘기계적 재활용(Mechanical Recycling, MR-PET)’ 페트이며, 화학적 재활용 페트(CR-PET)시장은 이제 막 시작되는 상황이다.

재생 페트를 활용해 식품용기(병·트레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염물질이 완전히 제거됐다는 안전성뿐만 아니라 신재(Virgin Plastic)에 버금가는 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폐플라스틱을 분쇄한 뒤 세척·선별·혼합 등 비교적 단순한 기계적 공정을 거쳐 재생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기계적 재활용 방식으로는 식품용기에 적합한 안정성과 물성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스카이펫 CR’은 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해 순수 원료 상태로 되돌려진 원료로 다시 페트(PET)를 제조하기 때문에 이물질에 대한 오염과 품질 저하가 없어 안심하고 식품용기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SK케미칼 정재준 신사업 개발실장은 “2025년 ‘스카이펫 CR’ 사업은 2천억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스카이펫 CR’을 통해 ‘보틀 투 보틀(Bottle to Bottle)’ 순환경제를 실현하고 ESG 경영에 입각한 사업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케미칼은 지난 수 년간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 생산을 위한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구축해 왔다. 지난해 폐플라스틱 수거가 용이한 중국의 슈에(Shuye)사에 지분투자를 했고, 제주개발공사와 경기도 화성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과 폐플라스틱 수거 MOU를 맺는 등 안정적인 폐플라스틱 원료 확보 체계를 확장하고 있다. 한편 SK케미칼은 지난 8월 제주 삼다수와 화학적 재활용 페트(CR PET) 생수병을 공동 개발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K지오센트릭-애경산업

대표 세제 ‘스파크’에 단일 포장재 도입

단일소재 포장재로 플라스틱 자원순환 가속

SK지오센트릭이 애경산업의 대표 세탁세제 브랜드 ‘스파크(SPARK)’ 제품에 단일 포장재를 공급했다고 2월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스파크 3kg 리필제품에 사용되던 포장재는 기존 복합재질에서 SK지오센트릭이 개발 및



▲ SK지오센트릭이 개발·생산한 단일재질 포장재가 적용된 애경산업 ‘스파크’ 제품

생산한 단일재질 포장재로 변경된다. 양사는 단일 소재 변경으로 재활용 비율을 높이고, 그만큼 탄소 배출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존 복합재질로 만든 포장재는 나일론과 폴리에틸렌필름의 다층 복합소재로 제작돼 재활용이 불가, 일반쓰레기로 소각·매립해야 했다. 이를 SK 지오센트릭이 만든 저밀도 폴리에틸렌(Low Density Polyethylene, LDPE) 단일재질 포장재로 대체하면 분리배출과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SK지오센트릭은 기존 나일론이 가진 충격에 견디는 성질과 인쇄가 쉬운 점 등의 장점을 추가로 결합해 동일한 수준 품질을 만들어 냈다.

양사는 연간 약 45만개의 스파크 리필 포장재가 복합재질에서 단일재질로 대체되고 이를 통해 연간 약 1.7톤 이상의 탄소배출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활용 비율도 높아져 플라스틱 자원순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사는 지난해 3월 ‘친환경 패키징 개발 및 플라스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생활용품·화장품 패키징 단일 소재화, ▲백색·투명 패키징 개발, ▲플라스틱 용기 회수 및 재활용 캠페인 등 분야에서 협력기로 했다. 이번 스파크 포장재 교체 도입은 이 협력의 성과 중 하나다.

양사는 스마트 액체세제 브랜드 ‘리큐(LiQ)’ 리필 제품에도 재활용 포장재(PIR-LLDPE)를 도입한 바 있다. 나아가 친환경 포장재 개발 및 플라스틱 재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가기로 했다.

SK지오센트릭 장남훈 패키징 본부장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재 및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 개발을 지속 확대함으로써 ‘폐플라스틱 & 탄소 제로(Zero)’ 전략의 실행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솔제지-풍림P&P

친환경 종이용기 도입 MOU

오뚜기 카레도 친환경 포장한다

한솔제지의 친환경 종이 소재와 포장재가 오뚜기의 식품 용기에 적용된다.

한솔제지는 지난 2월 21일 식품전문기업 오뚜기의 계열사인 풍림P&P와 친환경 종이용기 및 포장재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풍림P&P는 오뚜기의 식품 용기와 포장재 등을 생산하는 식품 포장재 기업으로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에 따라 포장재 생산의 전 공정에 친환경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풍림P&P는 식품 포장에 한솔제지가 만든 친환경 종이용기 및 포장재를 도입하고 종이소재 적용 영역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풍림P&P는 우선 종이용기 및 종이 뚜껑 등에 한솔제지의 친환경 종이용기 제품인 테라바스(Terravas)를 적용한다. 테라바스는 한솔제지의 친환경 브랜드로 컵, 용기, 빨대 등에 사용가능하



▲ 한철규(오른쪽) 한솔제지 대표와 이동규 풍림P&P 대표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다. 기존의 플라스틱 계열 코팅 종이용기와 달리 자체 연구개발한 수용성 코팅액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도 양사는 레토르트, 파우치, 먼 포장 등에 친환경 종이 포장재 프로테고(Protego) 적용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프로테고는 알루미늄, 비닐 소재 포장재를 대체할 수 있는 종이 포장재로 고차단성과 친환경성이 특징이다. 특히 내수성, 내유성이 좋아 취식 후 세척을 할 때 쉽게 음식물이 제거돼 재활용성도 높다는 강점이 있다.

한철규 한솔제지 대표는 “앞으로도 식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이소재의 지속가능한 포장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친환경 소재 기업으로의 입지를 견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개발공사

화학적 재활용 페트 적용 '제주삼다수'

'제주삼다수 RE:Born' 생산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추진

페트병 내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가 예고된 가운데 이르면 연내 지속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재생 페트병에 담긴 제주삼다수를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 제주삼다수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가 상업용으로 적합한 화학적 재활용 페트(CR-PET)를 적용한 '제주삼다수 RE:Born(가칭)'의 생산체계를 구축해 2만여 병을 생산 완료했다고 2월 7일 밝혔다.

화학적 재활용 페트(CR-PET)는 수거한 투명 페트병을 화학반응으로 분해해 회수된 원료로 만들어진 페트(PET)다. 반복적으로 재활용해도 식품

접촉 용기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어 페트병을 다시 페트병으로 사용하는 보틀 투 보틀(Bottle to Bottle) 형태로 플라스틱 자원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으로 손꼽힌다.

현재 식품위생법 상 식품 용기로 사용할 수 있어 원료의 대량 공급 체계가 갖춰지는 대로 상품화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제주 삼다수는 지난해 10월 국내 최초로 화학적 재활용 페트(CR-PET) 적용 제품인 '제주삼다수 RE:Born(가칭)'을 개발, 친환경 생수병 라인업 구축을 완료했다. 이후 환경부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을 통해 수질 및 용출테스트를 진행, 생수 용기로서의 안전성과 적합성을 인정받았다.

'제주삼다수 RE:Born(가칭)'의 페트는 SK케미칼의 '스카이펫(SKYPET)-CR'을 30% 사용했으며 양사가 공동개발했다. 향후 공동연구를 통해 재생 원료의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제주개발공사는 앞으로 '제주삼다수 RE:Born(가칭)'을 활용해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 내 삼다수 체험관에서 어린이들의 친환경 교육 및 홍보를 할 예정이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불확실성이 높아진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가 상업용으로 적합한 화학적 재활용 페트(CR-PET)를 적용한 '제주삼다수 RE:Born(가칭)'의 생산체계를 구축해 2만여 병을 생산 완료했다.

현재, 지속가능성이 경영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환경 경영’은 지속가능성의 핵심축이자 기업의 필수 과제라면서 “원료 공급 및 생산의 안정화를 거치는 대로 상용화해 친환경 라이프를 지향하는 고객들께 선보이고 ‘한국형(K)-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개발공사는 친환경 경영 비전인 ‘그린 홀 프로세스(Green Whole Process)’에 따라 ▲친환경 제품 생산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6월 무라벨 제품인 ‘제주삼다수 그린’을 시작으로 물리적 재활용 페트(MR-PET), 화학적 재활용 페트(CR-PET), 바이오페트(Bio-PET) 등 소재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친환경 소재 개발과 동시에 페트병의 무게를 줄이는 경량화 연구를 통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을 50% 줄인다는 방침이다.

LG화학-고려대

친환경 소재 기술 개발 손잡았다

생분해 플라스틱, 플라스틱 재생 공동연구

LG화학이 고려대학교(이하 고려대)와 친환경 소재 기술 개발에 나선다.

LG화학은 서울 성북구 고려대 본관에서 신학철 부회장과 정진택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소재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월 17일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 ▲고효율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정 ▲차세대 배터리 소재 등의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특히 천연물을 이용해 해양에서 자연분해되는 플라스틱 소재 등

친환경 원천 기술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과대학 산하에 공동 연구센터인 ‘LG화학-고려대 친환경 소재 산학협력센터’를 설립하고, R&D 교류회 및 상호 자문 활동과 함께 산학장학생 선발 등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

LG화학은 2025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해 ▲친환경 소재 ▲전지 소재 ▲바이오 등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고려대와의 협업으로 관련 원천 기술 확보 및 상용화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고려대는 이번 협약에서 LG화학을 고려대의 가족 기업인 KU크림슨기업으로 위촉했다. KU크림슨기업으로 지정되면 고려대로부터 최고 수준의 밀착형 산학협력 지원을 받게 된다.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은 “양 기관 간의 연구 협력 체결과 더불어 LG화학을 고려대의 가족인 KU크림슨기업으로 위촉한 뜻깊은 날”이라며 “이번에 신설되는 산학협력센터를 거점으로 양 기관 간 진취적인 교류를 지속하는 가운데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우리 사회의 더 나은 미



▲ LG화학은 서울 성북구 고려대 본관에서 신학철 부회장과 정진택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소재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월 17일에 체결했다.

래를 위한 친환경 기술 개발에 기업과 학교가 함께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LG화학은 고객의 삶을 혁신하는 지속가능한 기술 개발을 목표로 친환경 소재 연구와 우수인재 양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제지

‘밀크’ 복사지로 ‘독도’ 알린다

박스 · 포장지에 ‘숫자로 보는 독도’

한국제지(대표이사 안재호)는 국내 유일 생산 복사지이자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밀크(milk)’가 사단법인 독도사랑운동본부(총재 원용석)와 함께 독도 알리기 프로젝트에 동참한다고 2월 15일 밝혔다.

한국제지 밀크는 연평균 약 660만 박스가 판매되는 국내 유일의 국산 복사지 브랜드로, 우리나라 학교 · 기업 · 단체 · 정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시장 점유율 1위의 국민 복사지다.

한국제지는 올해부터 생산되는 국산 복사지 밀크 박스 · 포장지에 ‘숫자로 보는 독도’ 콘텐츠를 넣어 소비자들에게 독도 홍보 콘텐츠를 확산, 인지시킬 계획이다. 실제 독도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독도의 다양한 이야기를 일상생활에서 회자시켜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한걸음 가까워지게 하겠다는 의도다.

국산 복사지 밀크의 독도 지원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국제지는 2021년 독도사랑운동본부를 통해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수호에 힘쓰고 있는 울릉군 독도의 행정 기관에 밀크를 기부했다. 일회성 기부 행사에 그치지 않고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유통되는

밀크 복사지 패키지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 콘텐츠를 담아 독도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이번 독도 알리기 프로젝트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유일한 국산 복사지이자 시장점유율 1위인 밀크만 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독도 알리기 콘텐츠는 밀크 80g A4 패키지에 먼저 적용되며 A4용지 모든 라인업으로 차례대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판매 수익금 일부는 본부에 기부돼 독도 수호 홍보 활동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제지 담당자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자 주권의 상징인 독도와 국내 토종 기업이자 국내 유일 생산 복사지 밀크의 만남은 필연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국산 복사지 밀크에 독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입히고 싶다”며 “국내 유일 생산 복사지으로써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꾸준히 수행할 예정”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독도는 한국땅 프로젝트 EP.1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
독도를 아시나요?

1025 10월25일 독도의날 40240 독도 우편번호
2268 독도의 높이(m)는 백두산 한라산보다 높아
91 독도는 동도와 서도를 포함한 91개의 섬
87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거리(km)

KOREA # DOKDO
본 프로젝트는 (사)독도사랑운동본부의 MADE IN KOREA 밀크가 함께하며, 판매 수익금 일부는 독도수호활동을 위해 기부됩니다.

▲ 한국제지(대표이사 안재호)는 ‘밀크’ 포장지에 ‘숫자로 보는 독도’ 콘텐츠를 넣어 소비자들에게 독도 홍보 콘텐츠를 확산, 인지시킨다.

“올해 식(食) 키워드, L.I.F.E”

CJ제일제당, ‘2022 식문화 트렌드 전망’ 발표

초편리(Less effort) · 개인화(Individual) · 푸드테크(Food tech) · ESG

올해 식문화 트렌드의 핵심 키워드는 ▲초편리(Less effort) ▲개인화(Individual) ▲푸드테크(Food Tech) ▲지속가능성(ESG)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될수록 이 같은 흐름이 더 빠르게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4,665명을 대상으로 약 8만 3,000건의 식단과 26만 건의 조리 방법·메뉴를 빅데이터로 분석·조사해 ‘2022 식문화 트렌드 전망’을 발표했다.

초(超)편리(Less effort) 추구 : 효율적인 집밥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시각이 ‘공존’으로 바뀌고 가정 내 체류시간이 줄면서 소비자의 요리시간을 아낄 수 있는 ‘초(超)편리(Less effort)’에 대한 니즈가 더욱 높아졌다. 간편한 집밥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늘어난 데다 학생들의 등교율과 직장인의 회사 근무빈도가 점차 증가하면서 조리부터 식사까지의 시간과 노력을 더 아껴주는 ‘초 편리한 제품’에 대한 선호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CJ제일제당이 지난해 진행한 ‘가정간편식(HMR)에

대한 인식과 식사 마련법’ 조사(1,000명 대상)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HMR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됐다’는 응답자는 71.9%였다. HMR을 활용한 식사도 1인당 연평균 225.5끼에서 236.5끼로 11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조리 및 취식 간편성’이 57.3%로 가장 높았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식사 준비과정에서 편리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편리함을 느끼는 기준은 점점 높아져 ‘초 편리한’ 제품 추구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식사 준비단계에서부터 소비자의 사소한 불편을 파악해 해결해주는 ‘넥스트(Next) 편의성’ 제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뼈와 가시를 없앤 ‘비비고 순살 생선구이’, 전자레인지에 2분이면 완성되는 솔밥인 ‘햇반 솔밥’ 등이 대표적인 예다. 효율적인 집밥에 대한 니즈가 커지면서 HMR의 영역이 식사 준비뿐 아니라 취식시간도 줄여주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화(Individual) :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급부상

개인화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일상 속 면역과

LESS EFFORT	INDIVIDUAL	FOOD TECH	ESG
			
‘초(超)편리’ 추구 : 효율적인 집밥	개인화 : 고객 니즈 세분화/ 개인맞춤형 산업성장	푸드테크 : 친환경 기술 기반 대체육 · 배양육 · 소재 개발	지속가능식품 : 환경을 생각한 제품

▲ 2022년 4대 식문화 핵심 키워드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MZ세대는 자신을 위한 투자로 건강기능식품에 지갑을 열고 있다. 식품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맞춤형 시장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CJ제일제당은 이 같은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건강사업부를 독립시켜 CJ웰케어를 출범하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집밥 메뉴도 갈수록 세분화되고 있다. HMR, 배달 음식, 밀키트를 활용해 외식의 전유물이었던 양식, 중식 등의 다양한 메뉴들을 집밥으로 차려 먹는 것이 일상 이 됐다. 실제 지난해 가정에서 차린 한식 식단의 비중은 1.2%p 감소한 반면 양식과 중식 등이 그만큼 늘었다. 특히 HMR은 '시간약자(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외식메뉴를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최선의 한 끼로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이다. CJ제일제당 간편식 브랜드 고메의 중화식 제품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3배 성장했다.

식품업계 자사몰도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고객의 눈높이를 고려한 맞춤형 플랫폼은 더욱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다. 구독서비스의 경우 생필품, 식음료,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취향을 고려한 품목을 추천하고 쇼핑 시간도 줄여주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푸드테크(Food Tech) : 친환경 기술 기반 식품 · 소재

급변하는 식품시장 속에서 연구개발 및 투자를 통한 미래 먹거리 선점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친환경 기술 기반의 식품과 소재는 식품업계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新)기술 집약체로 불리우는 '대체육', '배양육', '친환경 조미소재' 등이 대표적인 예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비건 인증을 받은 100% 식물성 '비비고 플랜테이블 만두'를 출시한 데 이어 올해는 대체육 기술을 발전시켜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심은 식물성

재료로 만든 음식만 제공하는 비건 레스토랑을 오픈할 예정이고 SK도 1,000억원대 펀드를 조성해 대체 식품 시장 공략에 나섰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대체육 시장규모는 2020년(115억) 대비 약 35% 성장해 155억 원에 이르렀고 2025년에는 181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글로벌시장은 2015년 4조 2,400억원에서 2023년엔 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시장이 6년 만에 50% 가까운 성장세를 보인 점을 비추어 볼 때, 국내 시장도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첨가물, 화학처리 등 인위적 공정을 거치지 않는 조미(향·맛) 소재도 각광받고 있다. 천연 조미소재 시장은 연평균 6~10%가량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대표적인 천연발효 조미소재인 CJ제일제당의 '테이스트엔리치(TasteNrich®)'는 출시 지난해 매출 300억 원을 기록하며 글로벌기업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지속가능성(ESG) : 환경을 생각한 제품

'먹는 것'이 나를 위한 소비였다면 이제는 '가치 있는 소비'로 그 개념이 확장하고 있다. 윤리적 제품, 친환경 제품은 MZ세대의 구매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재활용이 손쉽고 플라스틱 저감 노력이 담긴 제품들의 출시가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및 국내 주요 식품기업은 고객이 사용한 용기를 직접 수거하기 시작했고, 포장에서 불필요한 트레이 등을 최소화해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에 힘을 쏟고 있다.

푸드 업사이클링도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콩비지, 깨진 쌀 등 버려지는 것들이 당연했던 식품 부산물로 만든 친환경 제품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임영하 CJ제일제당 트렌드인사이트팀 팀장은 "일상 회복이 기대되는 올해 식문화 트렌드에는 보다 편리하게 건강과 취향을 챙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담길 것"이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먼저 읽고 이에 부합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